

圖書館學教育의 現況과 改善方向

韓 相 完
(全南大 文獻情報學科)

I. 序

우리나라에서의 근대적 의미의 圖書館學教育 역사는 1946년에 개강된 國立圖書館學校의 설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의 圖書館學教育史는 이보다 훨씬 앞선 1887년 듀이(Melvil Dewey)가 시작한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학교(Columbia College School of Library Economy)였으니 그 역사는 1세기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년제 정규 대학에서 圖書館學教育을 시작한 것은 1957년 연세대학교에서부터였으니 그 역사라야 30년이 채 못 되는 유아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圖書館學教育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量的인 면에서는 비약적으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圖書館學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의 학문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감을 주고 있는 데 이는 專門司書職(Professional librarianship)을 양성하는 圖書館學이 지니고 있는 專門性과 特殊性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背景을 지닌 圖書館學教育에 금세기 중엽부터는 西歐에서 情報學(Information Science)이 그 教育課程에 도입·소개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專門司書職教育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情報學 指向의 영

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쳐 韓國情報管理學會가 專門學會로서 발족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이제까지의 司書職, 文書管理職, 情報管理職의 教育을 통일적이고도 일관된 體系를 갖추고 시행하는 것이 圖書館學教育에서의 새로운 課題로 부상하였다.

그러면 앞서 제시된 문제 즉, 향후 專門司書職과 情報專門職의 教育方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 이들에 대한 對案을 중심으로 圖書館學教育의 現況과 나아가야 할 方向에 관하여 提言하고자 한다.

II. 圖書館學教育의 現況

圖書館學教育의 目標은 學校圖書館,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專門研究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을 포함한 情報센터(Information Center)를 망라한 知識과 情報資料의 收集, 分析, 整理, 組織 및 서비스를 위해 근무할 專門司書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專門司書職의 專門性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서도 아직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職에 대한 확고한 社會的 컨센서스가 확립되지 못한 점도 사실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선에서 圖書館學教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란 단순한 실무적 경험이

나 기술적 지식의 축적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正規教育課程을 요하며 大學과 권위 있는 교육기관에 의해 그 교육 결과를 평가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資格의 공증성이 전문직 개념의 근간이 된다 함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教育制度下에서 司書職이 이러한 조건을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도 현행 教育制度와 教育課程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司書職은 각종 圖書館과 資料室, 情報室 혹은 情報센터에 근무하는 專門人力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바, 이들을 양성하는 기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 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등의 專門大學院 課程을 포함한 정규 대학에서의 교육과 2년제 전문대학, 1년제 韓國司書教育院 및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과정이다. 정규 대학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각종의 자격취득 강습과정에 의해 사서직을 양성해 왔는데 이는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초기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도 專門司書職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으면서까지 資質을 갖추지 못한 資格證을 남발하는 1년 내지 몇 주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短期講習課程이 계속되는 점은 이해의 限界를 넘은 것으로 조속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기간의 자격취득과정은 어디까지나 정규과정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정규과정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 임시로 긴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시적이며 잠정적인 과정으로서 족한 것이다. 1985년 현재 4년제 정규 대학에서만 28개 학과와 이에 준할 수 있는 2개 대학에서 1년의 입학 정원만 1,500여 명을 넘고 있는 지극한 존재 이유가 없어졌음에 틀림없다.

Ⅲ. 教科課程 現況과 改善方向

圖書館學教育의 초점을 專門司書 및 情報管理職의 양성이라고 볼 때 도서관학 교육은 이러한

〈표 1〉 국내 각 대학 도서관학과 설치연도 및 입학 정원

대 학 명	설치연도	입학정원
연 세 대 학 교	1957	46
이 화 여 자 대 학 교	1959	69
중 앙 대 학 교	1963	39
성 군 관 대 학 교	1964	63
경 북 대 학 교	1974	46
숙 명 여 자 대 학 교	1976	50
효 성 여 자 대 학 교	1977	50
부 산 여 자 대 학 교	1979	48
청 주 대 학 교	1979	52
개 명 대 학 교	1980	60
진 남 대 학 교	1980	46
진 북 대 학 교	1980	46
충 남 대 학 교	1980	57
상 명 여 자 대 학 교	1980	50
동 덕 여 자 대 학 교	1980	야간 51
병 지 대 학 교	1980	야간 52
덕 성 여 자 대 학 교	1980	50
서 울 여 자 대 학 교	1981	52
한 성 대 학 교	1981	52
한 남 대 학 교	1981	50
동 의 대 학 교	1982	52
대 구 대 학 교	1982	65 (우39, 야26)
공 주 사 법 대 학 교	1983	39
경 기 대 학 교	1983	52
전 주 대 학 교	1983	52
부 산 산 업 대 학 교	1983	52
부 산 대 학 교	1984	48
진 국 대 학 교	1984	52
강 남 사 회 복 지 학 교	1978	52
광 주 개 방 대 학 교	1984	80

(1985년 3월 현재)

전문직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原理와 專門의 知識을 教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 이러한 專門司書職의 수행이란 바로 圖書館 및 情報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들 전문사서직, 정보관리직의 실무 활동은 이러한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업무인 것이다. 이러한 機能을 수행할 專門家를 기르는 教科課程은 이러한 機能을 수행하기 위한 도서관 업무의 측면과 과목별로 담고 있는 학문적 성격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업무

별로는 1) 수서업무 2) 자료정리업무 3) 정보서어비스업무 4) 대출업무 5) 관리업무로 나눌 수 있고, 학문적 성격에 따라 나누면 1) 도서관경영학(Library Administration) 2) 서지학(Bibliography) 3) 분류목록학(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4) 정보서어비스(Information Service) 5) 정보학(Information Science) 영역으로 대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교과과정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7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다.

1) 입문 과정

도서관학개론, 도서관 정보학개론, 서지학개론, 정보학개론, 도서관과 사회, 정보와 사회 등

2) 도서관 경영학 과정

자료선택론, 도서관과 자료, 도서관 경영학, 대학도서관 경영학, 전문도서관 경영학, 학교도서관 경영학, 공공도서관 경영학, 도서관 정책론, 도서관 조사통계론, 의학도서관 경영학 등

3) 서지학 영역

도서관사, 도서 및 인쇄사, 서지구조론, 한국서지학, 동양선적, 중국서지, 고문서관리론 등

4) 분류 목록학 영역

분류법, 목록법, 자료조직법, 분류목록연습, 사서실습, 고서정리법, 미도서자료 조직론, 정부간행물 처리법, 시청각자료 운영, 타자실습 등

5) 정보서어비스 영역

커뮤니케이션이론, 독서지도 방법론, 문헌이용법, 참고봉사론, 정보서어비스론, 정보자료론, 주제별 정보자료론, 인문과학정보, 사회과학정보, 과학기술정보, 정기간행물, 공문서 관리, Medical Terminology, 산업정보시스템 등

6) 정보학 영역

정보처리법, 색인초록법, 프로그래밍, 컴퓨터개론, 정보검색론, 정보관리론, 도서관 자동화론, 정보학특강, Information Service & Research, 시스템분석론, 정보수학, 정보공학개론, 마이크로컴퓨터 이용, DBMS 이용 등

7) 기타

도서관학 연구방법론, 도서관학사, 비교도서관 등

이상과 같이 업무 영역별 그리고 학문 영역별

로 대별해 본 敎科課程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와 개선의 필요성을 안고 있다.

첫째, 동일한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목명이 대학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과목의 명칭과 내용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는 대학별로 특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표준화라고 하더라도 내용상의 일관성에 관한 것이 지 규격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입문과목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각각 도서관학개론, 정보학개론, 서지학개론으로 구분·설강되어 있어서 입문에 필요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교과목의 명칭별로 살펴볼 때 철학적, 이론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분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현재의 도서관학에 보다 학문적인 성숙도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데서 더욱 그러하다.

네째, 대학에 따라 졸업 요건으로서 卒業論文을 쓰게 하는 곳과 卒業試驗을 치르게 하는 곳이 있긴 하나, 대부분의 대학이 졸업생에게 論文을 쓰도록 요구하면서도 研究方法論을 개설한 대학이 극소수이다.

다섯째, 향후의 사회가 情報社會(Information Society)로 발전하리라는 예측과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情報社會의 현상인 情報의 폭발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너무나 크다. 따라서 전통적인 도서관학으로 구성된 교과과정만으로는 현대의 情報社會가 필요로 하는 情報專門家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에 정보학 과목을 더 많이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 상세히 논의코자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 대학의 도서관학 교육은 각종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 발휘하여야 하는 情報서어비스의 極大化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主題專門家(Subject Specialist)를 기르기 위한 적절한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主題別書誌, 예컨대 人文科學情報(書誌), 社會科學情報(書誌) 및 科學技

術情報(書誌) 등은 개설하여 놓고 있기는 하나 이는 一般司書를 위한 기초적인 과목에 불과하며 한 主題分野를 중점적으로 이수하여 소위 한 主題分野의 情報와 知識에 능통한 專門家로서 최대 정보서비스(Maximum Information Service)를 수행할 수 있는 작금의 情報社會에서 요청하는 소위 主題專門家로서의 專門職司書를 기르는데는 教育制度的 모순을 안고 있다 하겠다.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學部水準에서 特定主題를 전공한 바탕 위에 大學院水準에서 圖書館學 혹은 文獻情報學(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을 연구케 하는 教育制度的 도입이란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윌리엄슨(Charles C. Williamson)의 보고서 즉 1921년에 보고된 *Training for Library Work: A Report Prepared for the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와 1923년에 제출된 *Training for Library Service: A Report Prepared for the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이 권고하는 바에 의하여 미국의 도서관 전문직의 교육은 公共圖書館에 부설되어 가르쳐 오던 학사학위 수준의 큰 흐름을 바꾸어 大學院水準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첫 결과가 1926년 圖書館學教育史上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에서의 碩士學位水準 圖書館學 大學院(Graduate Library School University of Chicago)의 創設이었다. 오늘날 미국이 文獻情報學分野에서 세계의 지도적 위치를 걸치게 된 원인 중 가장 관목할 일은 學部水準의 교육을 카네기 재단의 후원으로 大學院水準으로 변혁한 시카고 대학의 영단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평가된다.

1980년에는 이제까지 미국에서의 文獻情報學教育을 세검토한 *The Conant Report*가 코난트(Ralph C. Conant)에 의해서 출판되었는데, 미국의 대학원 수준 교육의 허점을 지적한 후 그 對案으로서 현재 1년에 碩士學位를 받게 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2년으로 늘려서 가능한 한 特定主題分野와 文獻情報學의 二重碩士學位(Double Master's Program)를 수여하는 교육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미 10여 개 대학 이상이 이 2년간 교육과정 제도를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현재 學部水準 教育시스템은 再考한 심각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다.

IV. 情報學教育의 強化

1960년대에 유럽과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情報學(Information Science)이 傳統的인 圖書館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情報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情報를 처리하고 管理하게 되면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하여 정보학 자체적인 것으로 독립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진동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하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근년에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韓國圖書館學會에서 學問 명칭을 改定하려는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圖書館學이건 情報學이건 공히 인류의 知識情報를 效率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檢索하거나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方法論과 現象을 연구하는 점에서는 공동된다 하겠다. 따라서 전통적 도서관학이 環境變化 즉, 모든 학문의 발전과 세분화, 심화 등에 따른 文獻情報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手作業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폭발적인 양의 情報를 처리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를 처리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컴퓨터를 응용하게 되었고 情報의 效率的 檢索을 위한 理論의 探究로부터 情報學의 등장을 필요로 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情報學이 전통적인 도서관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전산학(Computer Science)을 전공하면서 도서관학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의 수용에 관한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누가 기척했건간에 도서관학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이 개발되었다면 이를 도서관학의 새로운 이론 및 영역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이론과 융합·발전시켜 나가는 진보적인 자세가 바람직할 것이다.

情報學은 학문 그 자체로서의 연구는 물론 産業, 經濟, 經營, 醫療, 法律機關 등 사회 제반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며 결국 社會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情報利用者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려는 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정보학의 이론 및 형성에 기여한 기존의 이론 및 학문에는 代數學, 論理學, 言語學, 統計學, 心理學, 電算學, 커뮤니케이션 理論, 사진학, 叢誌學, 圖書館學, 經營學 등이 있으며, 情報學이 社會 각 분야에서의 情報의 生産形態, 정보의 分析, 組織方式, 조직된 정보의 축적 및 검색, 傳達方式, 이용자들의 入手된 情報 利用方式 등에 관련 주로 연구하는 광범위한 연구영역 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학은 기타 학문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 방법과 발견들을 원용하고 또 자체적인 이론 및 방법론을 개발시키는 綜合學問的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결국, 정보학은 전통적인 도서관학(Library Science/Librarianship)에 적극적인 정보서버마스의 제공에 대한 특수하고 도 기술적이며 과학적인 접근이 강화되는 속성을 첨가시켰을 뿐 아니라 기초적인 기술 과학적 이론과 情報處理裝備 즉 컴퓨터의 소프트웨어(Software)에 관한 연구, 이의 응용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분석과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연구까지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정보학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도구는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기기, 마이크로칩의 제작 과정과 기술 등에 관한 이론이며 오늘날의 도서관과 정보센터들이 이 분야의 발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Data Base)는 情報의 商業化를 촉진시켰으며 다양한 형태의 정보 생산이 가능하여 개인, 정부, 기업 등에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판매가 가능하므로 상품으로서 의 정보의 개발, 생산이 가능하다. 실제로 정보의 가치가 물질 가치에 대해 현저한 比較優位를 갖는 歐美 여러 나라에서 상업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Online Data Base)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보다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여기에는 보다 개선되고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채널(Communication Channel)과 국가적, 국제적, 정보네트워크(Information Network)의 조직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 요구

의 次元에서 전문적 이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類 型的인 專門司官 또는 情報士가 절대적으로 요망 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에 발표된 디본스(A. Debons) 등의 저서인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Survey of an Emerging Field*에 의하면 정보를 다루는 업종만도 약 1,500종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情報專門家를 직무별, 직장별, 직종별로 표시한 후 Managers of Information, Information Operations Coordinators, Information Systems Specialists, Information Intermediaries, Information Theorists, Educators of Information Workers의 6개 종류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 내용을,

- 1) Managing information operations, programs, services, or data bases
- 2) Data/information preparation on behalf of others
- 3) Data/information analysis on behalf of others
- 4) Searching for data/information on behalf of others
- 5)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 6) Information systems design
- 7) Other operational information functions excluding management
- 8) Educating or training information workers
- 9) Information research development
- 10) Other information functions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살펴볼 때 대부분의 업무는 전통적인 圖書館學 教育領域에서 이미 취급되고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 급속도로 발전한 새로운 정보기술로 인하여 정보의 生産, 蓄積, 檢索, 管理方法이 달라짐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수준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도 다양해져서 기존의 도서관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情報의 形態나 素材를 불문하고 情報專門家는 利用者가 필요로 하는 情報를 신속하게 탐색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필요성의 견지에서 불

때 情報學分野 教育의 強化를 絶對하게 된다.

V. 結 論

情報社會의 도래는 세계의 변혁은 圖書館學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불러일으켰는데 거기다 새로운 학문으로 등장한 情報學과의 관계 등에 의해 교육내용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圖書館學과 情報學을 결합한 發展의 文獻情報學의 비두와 아울러 司書職도 그 활동 영역을 넓혀 시스템 分析家, 主題專門家,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컴퓨터·情報處理專門家, 圖書館自動化를 기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디자인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정보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司書의 教育이 더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情報專門家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소양에 맞게 교육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결

국 情報社會가 필요로 하는 專門司書職 혹은 情報專門職의 양성을 위해서는 현행 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거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종합학문적 배경을 갖춘 전문적 양성을 위해 교과과정의 범위와 內容을 개정·보완해야 한다.

둘째, 敎科課程의 개정에 요구되는 유능한 敎授陣을 확보하고 現在의 敎授陣도 再教育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접 학문 분야와의 연계성과 主題專門化의 한 방법으로서 特定學問의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적당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圖書館學教育의 改善과 發展을 위하여 大學問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리되 기본적인 핵심과목에 대하여는 표준적인 文獻情報學 教育課程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행 學部水準의 教育을 大學院水準의 教育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